

회원 가입률 99.9% 신화의 주인공

회원들과 하나로 똘똘 뭉친 천안시지부



천안시지부 임원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인섭, 부지부장, 문홍대, 지부장, 황규창, 부지부장, 손춘근, 총무, 이미지 사무국장

가지가지 뻗어 있는 강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 전국의 지회지부가 모여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베이커리>는 전국 지회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지회지부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두 번째 만남으로 높은 회원 가입률을 자랑하는 천안시지부를 찾았다.

글 · 김영주 기자 | 사진 · 정영주

천안시지부는 높은 회원 가입률로 유명한 곳이다. 순수 제과점 가입률이 99.9%를 기록할 만큼 협회에 대한 지역 인지도가 높은 편. 이러한 결과 뒤에는 언제나 발로 찾아가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 사람들이 있다. 천안시에서 제과점을 개업할 때 문을 열기도 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천안시지부 임원들. 사무국장은 물론 지부장을 필두로 한 임원들의 발길이 연신 이어진다.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제과점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만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한명의 회원이라도 직접 찾아가 얼굴을 봐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홍대 지부장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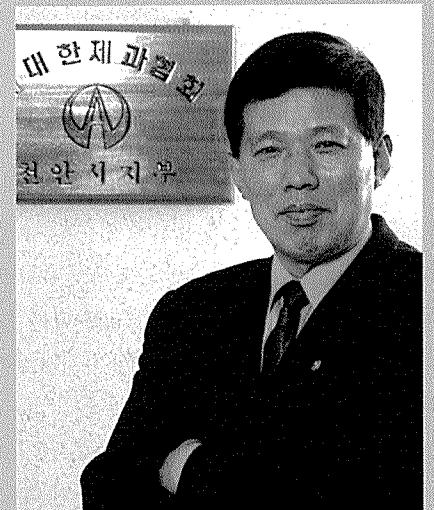
문홍대 지부장은 물론 임원들은 모두 개업할 때 뿐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할 때도 내 일처럼 달려간다. 행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위해 시청에 찾아가 싸우기도 다반사라고.

회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주기 위해 지부 사무실 전화는 24시간 열어 놓고 있다. 사무국장의 핸드폰으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든 급한 일이 생기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울 때 더욱 내 일처럼 도와주는 지부 사람들 덕분에 천안에는 제과점을 하면 당연히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지부

천안시지부는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장제도는 천안시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 회원 중에 지역장을 뽑아 자율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장들이 직접 회원들을 만나 협회의 일을 전달하면서 같은 회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공유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회원간의 화합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문홍대 지부장



천안시지부가 작년 시청 주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봉사한 공로로 천안시청에서 표창패를 받았다.

1. 1997년부터 푸드뱅크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천안시지부는 사무국장이 직접 제과점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다.
2.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지부는 각 지역 회원을 모두 적은 보드를 벽에 걸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천안시지부는 개업하는 제과점들 마다 활용도가 높은 시계를 선물한다.

유지해 나간다.

지역장들은 지부의 주요 회의나 이사회 등에 참여, 현장에서 얻은 회원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해 지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장이 먼저 돼야 지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장들의 역할이 크다. 실제로 역대 지부장들은 지역장 출신으로 회원과의 친밀도가 높고 회원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전해진다.

천안시지부는 회원들을 위해 구인구직, 기계알선, 공동구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업은 회원들이 협회로 문의한 정보를 모아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잡음이 많아질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부와 회원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잘 운영해 가는 중이다.

'기계알선' 사업은 기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규창 부지부장이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들이 구입한 기계가 고장났거나 새 기계를 구입할 때 도움이 되는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구매' 사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샴페인을 원가이하 금액으로 구입해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천안시지부는 올해부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한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위생교육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천안시에서는 제과점을 개업할 때 반드시 사전 위생 교육을 받아야만 허가가 나는데 회원들이 오픈을 앞두고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 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것을 보고 천안시지부에서 큰마음 먹고 마련한 것이다.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긴 하지만 회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다.

활발한 지역 봉사와 교류로 천안시에서 인정하는 우수 단체

천안시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지역 주민, 행정 단체, 다른 협회와 돈독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지부는 두 달에 한번씩 시청에서 주관하는 위생 단체 모임에 참여해 행정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음식협회 등 다른 위생 단체들과 교류를 꾸준히 쌓았다. 그 결과 음식협회로 제과점을 오픈하고 싶은 사람이 문의할 경우 제과협회를 소개해 주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천안시지부의 또다른 자랑거리는 1997년부터 회원들에게 푸드뱅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천안시에서 푸드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제과점이 50%가 될 정도로 지역 봉사에 대한 인지도를 넓혔다.

또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나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가해 솔선수범을 보이며 지역 봉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천안시청이 인정하는 우수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원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천안시 지부, 회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오랜 노력이 회원 가입률 99.9% 신화와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㉔

